



유통업계
인니 할랄시장
공략 나서
L1

metro®

Life

현대차
모터스튜디오
영화로 담았다
L2



이동은 편하게, 터전은 푸르게... 철도·방산의 따뜻한 변신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철도·방산 등 본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하고 있다. 열차를 만들며 쌓은 이동에 대한 경험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방산기업의 정체성은 참전 용사 지원에 접목하는 식이다. 환경 분야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직접 복원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사회공헌의 범위를 넓혔다.

이를 관통하는 개념은 '수호'다. 현대로템은 사회공헌 체계를 인류·환경·공동체를 지키는 세 축으로 구성했다. 운영체계와 투자도 확대했다. 대표이사 산하 사회공헌(CSR)운영위원회가 전략을 수립하고 본사와의 왕·당진·창원 사업장의 35개 봉사단이 지역별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사회공헌 투입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2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1147명이 5159시간 동안 활동에 참여했고 수혜 인원은 1만2008명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2029~2030년 국내외 CSR 거버넌스를 완성하고 사회공헌 투입비용을 매출액의 0.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열차 만들던 경험으로 교통약자 이동시간 줄인다

철도사업에서 쌓은 이동에 대한 경험은 교통약자가 혼자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서울시·서울교통공사·사단법인 무의와 함께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교통약자 환승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모두의 지하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연결형 안내표지'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어디에서 길을 잃거나 멈추는지 파악한 뒤 안내표지의 위치와 디자인에 반영했다.

효과는 이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역·시정역 등 주요 환승역 10곳에 개선된 안내체계를 적용한 결과 길 찾기 시간은 평균 6분25초 단축됐다. 이용자의 86.7%는 지하철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는 적용 대상을 서울 시내 25개 역, 50개 역사로 확대한다. 서울시 표준 가이드라인 반영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우동우 현대로템비즈니스지원팀 매니저는 "지문위판단 운영과 심층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주요 불편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안내체계에 반영한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환경정화 넘어 생태복원...되살아난 습지까지 추적

환경 분야의 사회공헌은 쓰레기를 줍고 나



1 현대로템은 교통약자 환승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모두의 지하철'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왼쪽부터),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해 7월 의왕시청에서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가 지난 6월 4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분향하고 있다. /현대로템



교통약자 위한 환승 안내체계 개선 휠체어 이동 동선 원활하게 안내해 서울 25개 역·50개 역사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블루리본 프로젝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공간 조성 임직원 환경정화 활동 '두발로데이'

저소득층 의료비·생활물품 등 지원 국가유공자에 '이동용 스쿠터' 전달 해외 참전용사·유가족 주택 보수도



무를 심는 활동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사업인 '블루리본' 프로젝트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되살리고 이를 환경교육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의왕시·환경단체 등과 협력해 의왕시 포일동의 훼손된 습지를 정비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꽂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습지 인근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생태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복원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맹꽂이를 비롯한 주요 생물종의 실제 서식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해 생태계 회복 정도를 데이터로 추적하고, 생태학습장은 인근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포일습지에서 복원 기념 식목과 쓰레기 수거 활동도 진행했다.

창원공장 인근에서는 맹꽂이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서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왕에서는 임직원들이 산책로와 하천변을 걸으며 환경을 정화하는 '두발로데이'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서 해외 사업국까지...지원 범위 확대

현대로템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취약 계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의왕에서 저소득층 의료비로 2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창원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명절 식사

와 생활용품, 폭염·한파 계절용품 등을 지원했다. 창원지역의 개별 지원사업은 향후 '생활안정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방산사업과 연계한 보훈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3000만원 상당의 이동용 스쿠터를 지원하고, 상이군인 국제 스포츠대회인 '2025 캐나다 인빅터스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을 후원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임직원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정화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참전용사까지 넓어졌다. '히어로즈 홈'을 통해 6·25전쟁 해외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노후·피해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다. 첫 사업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지난해 지원 대상 발굴과 주거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현지 실사와 설계를 토대로 재건 공사에 들어간다. 향후 태국·필리핀·에티오피아 등 다른 참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국에서는 현지 수요에 맞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보그엘아랍·몬타자 지역 난민 아동에게 학용품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폴란드에서는 방위사업청·국내 방산기업·카이스트(KAIST) 등과 현지 국방기술 인재의 국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metroseoul.co.kr



metro



▲ '금 1·2호' 근대5종 성승민·전웅태 "일본 하늘에 태극기 걸어 영광"
▲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우승' 남자 농구 대표팀 금의환향 /사진 뉴스스

▲ 종합격투기 이보미, 여자 54kg급 동메달 획득...종목 韓 첫 메달
▲ '대회 신기록' 김영범, 자유형 50m 전체 1위로 결승행...'2연패 도전' 지유찬 3위

▲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모레노호 소집 전 포르투서 데뷔골
▲ 다시 뛰는 한국 축구...모레노호 오늘 '첫 소집', 태극전사 품 '정점'